*사진은 AI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numbers

vol. 331 | 2026.4.21.

기독교 대안학교 vs 일반학교 비교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영포티 현상 인식
2.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현황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공교육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전략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기독교 대안학교 vs 일반학교 학생·학부모 인식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안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압도적이었다.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이 98%에 달하고, 신앙단계가 깊어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점은 기독 대안교육이 영적 성숙과 정서적 안정을 지탱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호에서는 기독교 대안교육이 거둔 성과를 확인하면서 한국교회가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적 대안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사례를 소개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vs 일반학교 학생·학부모 인식 비교 조사

조사개요

구 분	학생 조사		학부모 조사	
	일반학교 학생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학부모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조사 대상	국내 거주하는 일반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내 거주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국내 거주하는 일반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부모	국내 거주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표본 규모	500명(유효표본)	원표본 : 495명 가중치 적용 후 유효표본 : 425명	500명(유효표본)	원표본 : 516명 가중치 적용 후 유효표본 : 466명
조사 기간	2025년 12월 3일 ~ 2025년 12월 14일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29일	2025년 12월 3일 ~ 2025 12월 14일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29일
표본 추출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	편의추출
조사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대안학교 조사 학생 대상은 23개교, 학부모 대상은 25개교가 참여하였음. 학교별 응답 수의 편차로 인한 과표집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학교당 50표본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교별 최대 표본 수를 50으로 제한하였음			
조사 의뢰 기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 수행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 지역/성/학년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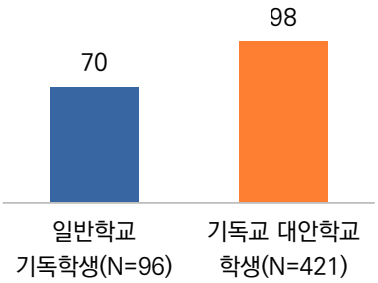
** 대안학생 및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 조사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전국 36개 이상의 기독교 대안학교에 실사 협조를 요청하고, 각 학교의 협조를 받아 설문 링크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01 [개인 신앙: 일반학교 vs 기독교 대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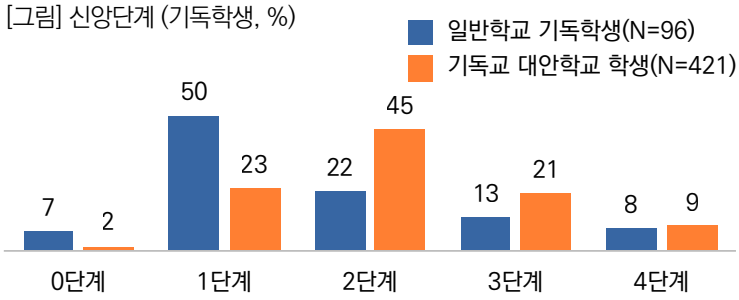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기독학생보다 신앙 수준 전반적으로 높아!

- 일반학교 기독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개인 신앙 수준을 비교한 결과, 교회 정기 출석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교 기독학생의 교회 출석률은 70% 수준인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98%로 거의 대다수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앙단계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는데, 일반학교 기독학생은 신앙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이하'가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2단계가 45%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신앙 성숙도를 보였다.

[그림] 교회 출석률 (기독학생, %)



[그림] 신앙단계 (기독학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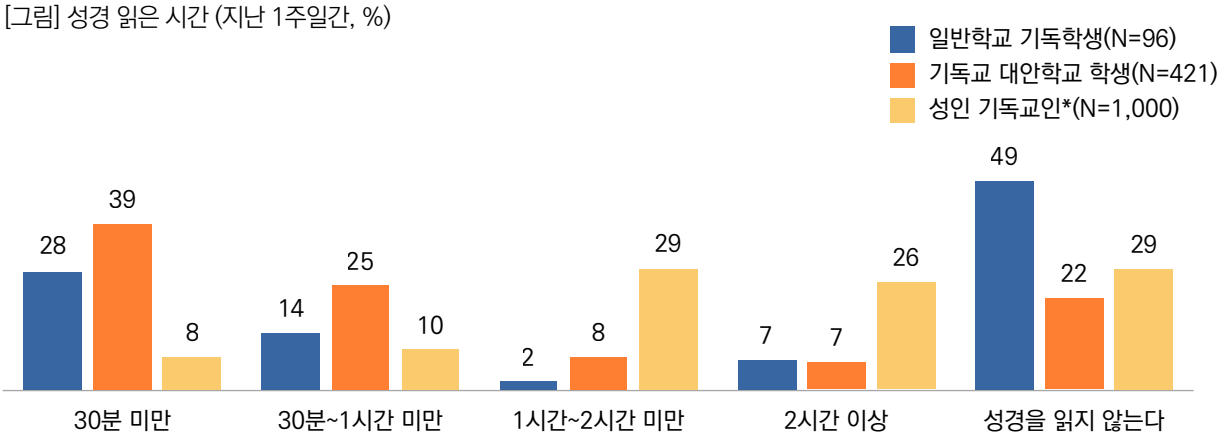


Note) 신앙단계 설명: 일반적으로 4단계로 묻지만, 중고생이기에 0단계를 추가함
0단계 : 나는 개신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지난 1주 간 성경 읽기,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78% vs '일반 기독학생' 51%!

- 지난 1주일간 성경 읽은 시간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교 기독학생의 경우 절반가량(49%)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성경을 읽은 학생 중에서도 '30분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안학교 학생은 22%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일반학교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도 긴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 성경 읽는 사람 비율로 보면 성인 기독교인(71%)보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78%)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그림] 성경 읽은 시간 (지난 1주일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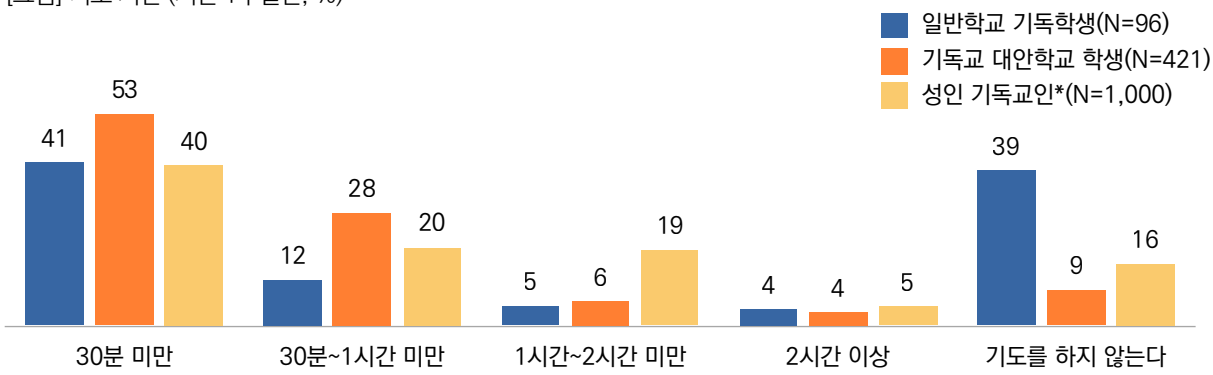


*성인 기독교인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기도 습관'은 성인 기독교인보다 앞서!

- 지난 1주일간 개인 기도 경험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91%가 기도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일반학교 기독학생(61%)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이 수치는 성인 기독교인(84%)의 기도 경험률보다도 높아, 기독 대안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적인 기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환경임을 입증한다.

[그림] 기도 시간 (지난 1주일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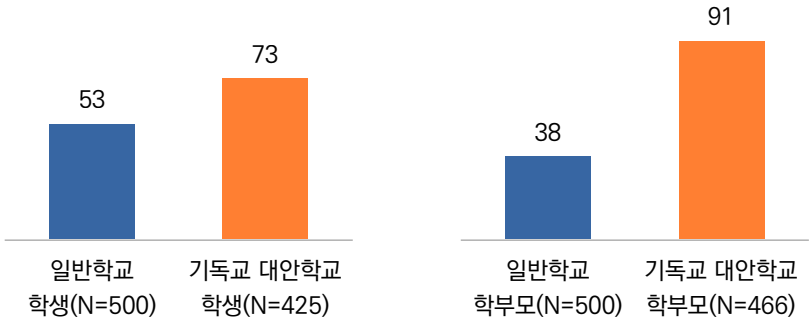
*성인 기독교인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 2025.09.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온라인 조사, 2025.05.15.~05.22.)

02 [학교 생활과 만족도]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일반학교를 압도했다.
- 먼저 학생의 경우 '대안학교 학생'(73%)이 '일반학교 학생'(53%)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고, 학부모 차이는 더욱 극명하여 '대안학교 학부모'의 자녀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학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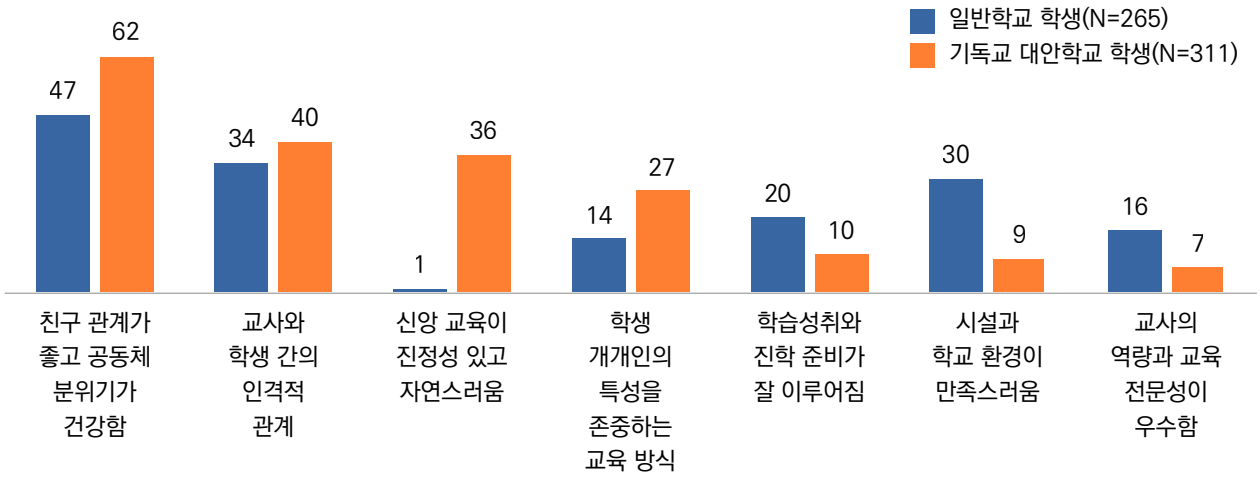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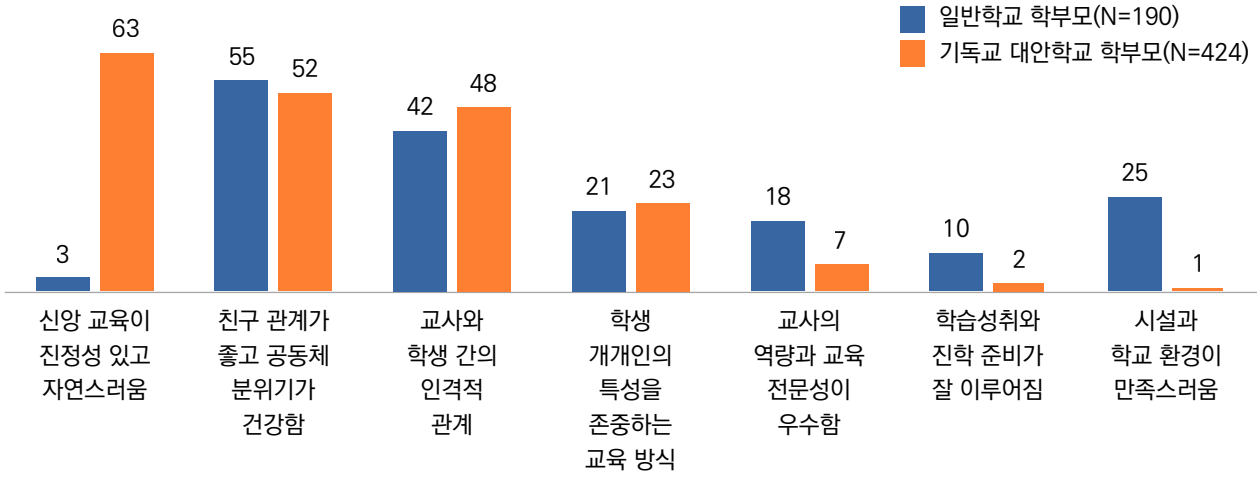
기독 대안학교 만족 이유, 학생은 '관계', 부모는 '신앙 교육'!

- 현 학교의 만족 이유는 '좋은 친구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가 일반학교(47%)와 기독교 대안학교(62%) 학생 모두에서 1위로 꼽혔다.
- 반면 학부모의 만족 이유는 학교 유형에 따라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학교 학부모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55%)'와 '교사와의 관계(42%)'를 주요 사유로 꼽았으나,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는 '진정성 있는 신앙 교육(63%)'을 최우선 만족 이유로 선택했다. 이는 기독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낼 때 단순한 인성 교육을 넘어 '신앙의 전수'를 가장 본질적인 가치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가 이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학교 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만족하는 학생,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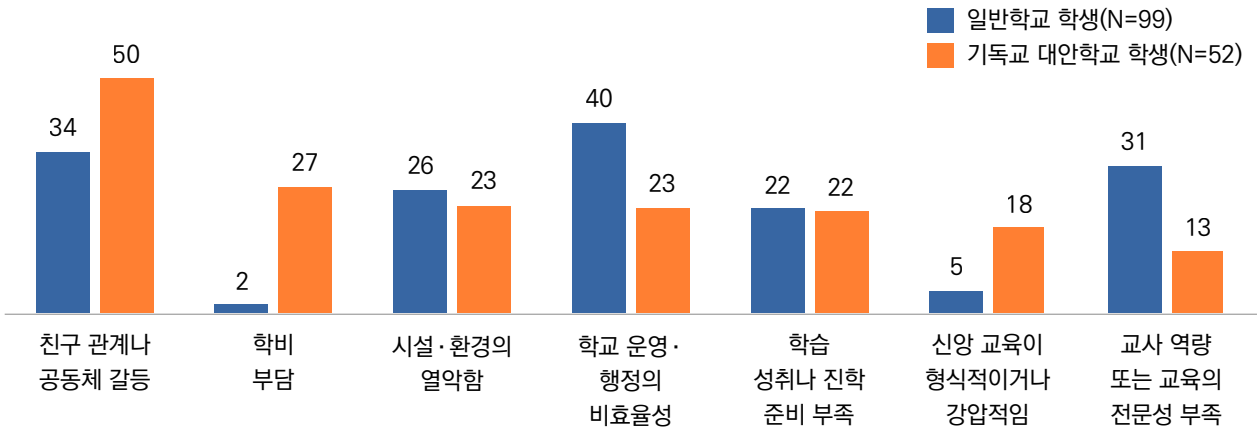
[그림] 학교 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만족하는 학부모,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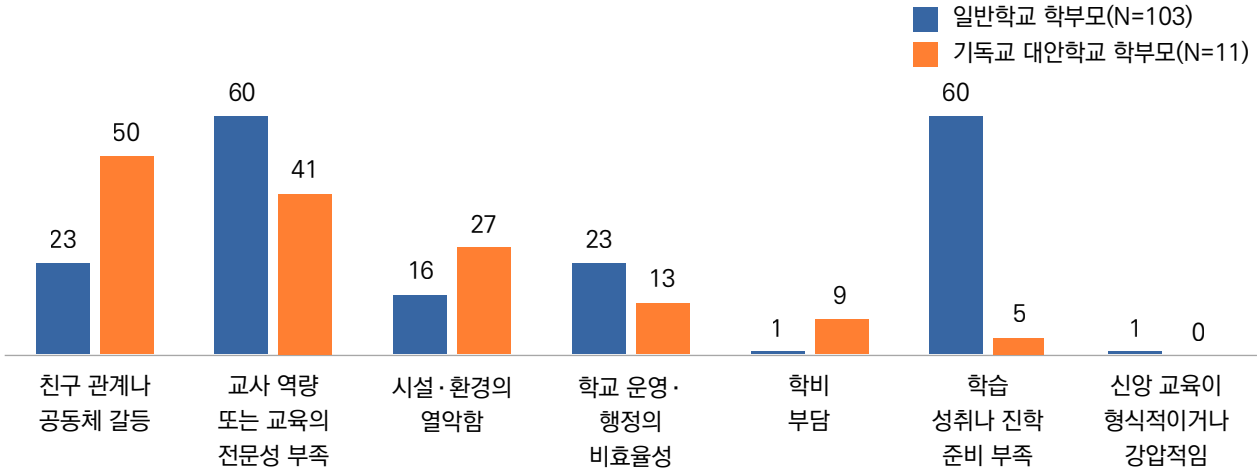
대안학교 불만족 이유 1위, '친구·공동체 갈등'!

- 현 학교의 불만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학생은 '학교 운영 및 행정의 비효율성(40%)'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은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절반(50%)이 '친구 관계나 공동체 갈등'을 1위로 선택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만족도를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보여준다.
- 학부모의 인식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일반학교 학부모는 '교사 전문성 부족(60%)'과 '진학 준비 부족(60%)' 등 교육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학부모는 대안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나 공동체 갈등(50%)'을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았다. 기독 대안교육의 강점인 '관계와 공동체'가 역설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림] 학교 불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불만족 하는 자,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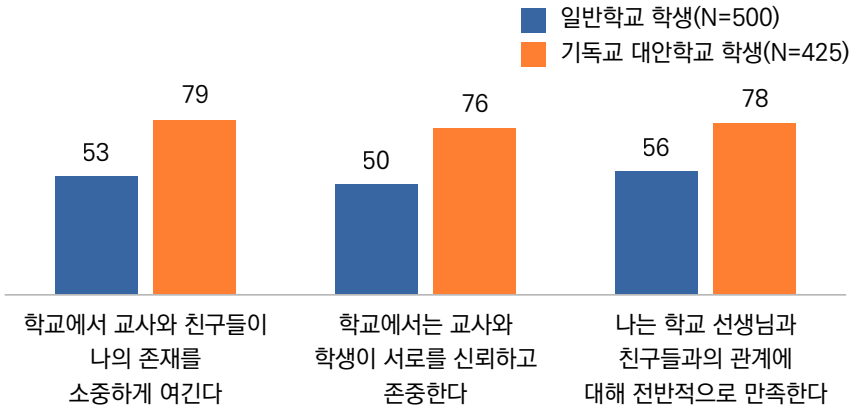
[그림] 학교 불만족 이유 (현재 학교에 불만족 하는 학부모, 1+2순위, 상위 7개, %)



교사·친구 관계 만족도,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이 최대 30%p 높아!

-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표 중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항목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긍정 인식('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이 일반학교 학생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그림]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 (학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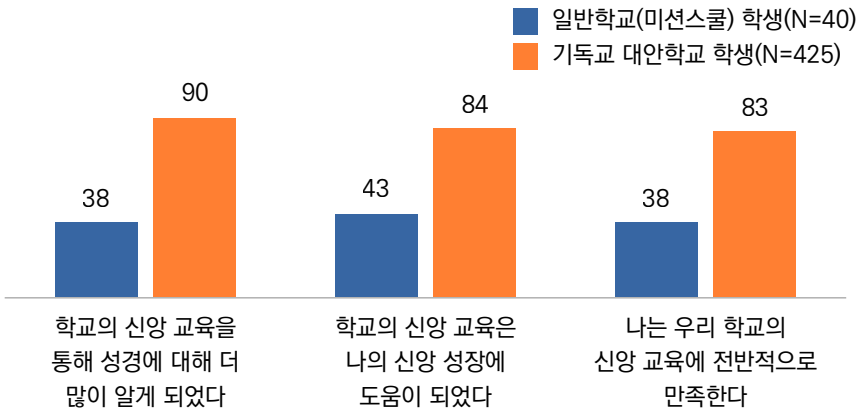


*5점 척도

신앙 교육 전반적 만족도, 기독교 대안학교 83% vs 일반 미션스쿨 38%!

- 이번에는 학교생활 지표 중 '신앙 교육' 항목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교(미션스쿨) 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간 인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일반학교(미션스쿨) 학생은 '성경 이해 수준 증진'(38%), '신앙 성장에 도움'(43%), '전반적 신앙 교육 만족도'(38%) 등 주요 항목에서 모두 30~40%대의 긍정률을 보인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각각 90%, 84%, 83%로 모든 항목에서 80% 이상의 높은 긍정률을 보였다. 이는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이 체감하는 신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실제 효과 측면이 일반 미션스쿨 학생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신앙 교육 (학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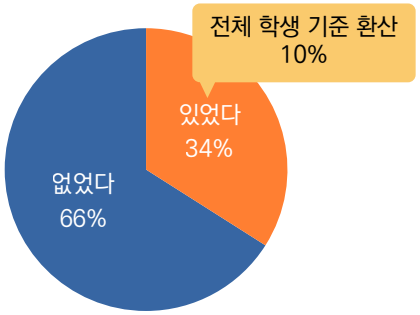
*5점 척도

03 [대안학교 선택과 이탈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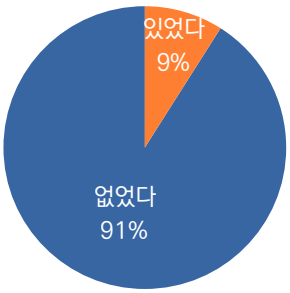
일반학생 10%, 대안학교 진학 고민했으나, '입시·통학·친구' 문제로 포기!

- 대안학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일반학교 학생 중 34%가 실제 입학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일반학생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명 중 1명(10%) 수준으로, 공교육 외 대안적 교육 모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 한편, 일반학교 학생 중 부모로부터 대안학교 진학을 권유받은 비율은 9%였는데, 이들이 부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학을 포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입시 준비에 불리할 것 같아서(24%)', '통학 거리가 멀어서(24%)', '친구들과 떨어져서(24%)'가 공동 1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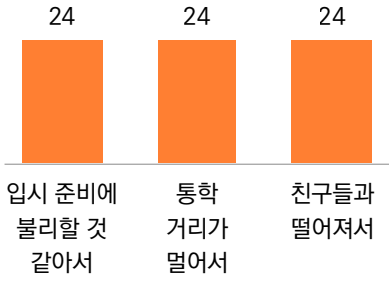
[그림] 일반학생의 대안학교 입학 고민 경험 (현재 학교 입학 전 대안학교 인지한 일반학교 학생, N=153)



[그림] 부모님의 대안학교 진학 권유 여부 (일반학교 학생,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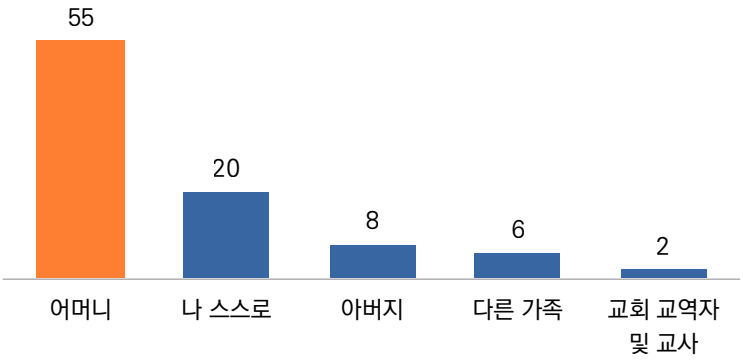
[그림] 대안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이유 (학교 입학 전 부모에게 대안학교 권유 받은 경험 있는 일반학교 학생, 1+2순위, 상위 3개, N=68, %)



기독교 대안학교 입학 권유자 1위, '어머니'(55%)...5명 중 1명은 '스스로 결정'!

-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을 처음 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은 결과, '어머니'가 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녀의 교육 환경과 신앙 성장에 있어 어머니의 판단과 영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나 스스로' 입학을 결정했다는 응답도 2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안학교 진학이 단순한 부모의 권유를 넘어, 학생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능동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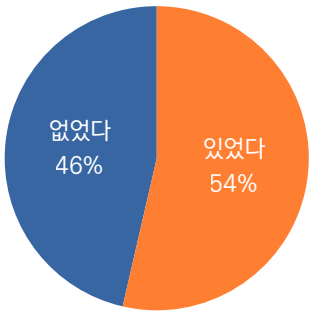
[그림] 대안학교 입학 권유자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상위 5개, N=4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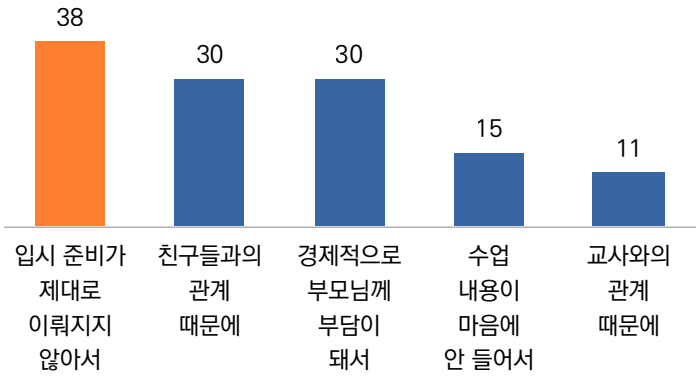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절반 이상, '일반학교로 전학 고민한 적 있다'!

- 대안학교 재학생의 학교생활 이면에는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고민하는 흔들림도 존재하고 있었다.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54%가 '일반학교로 전학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절반 이상은 공교육으로의 복귀를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전학을 고려한 이유로는 '입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38%)'가 1위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특유의 커리큘럼이 대학 진학이라는 현실적 관문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이탈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일반학교 전학 고민 경험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N=425)



[그림] 일반학교로 전학 가고 싶었던 이유 (일반학교 전학 의향 있었던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1+2순위, 상위 5개, N=2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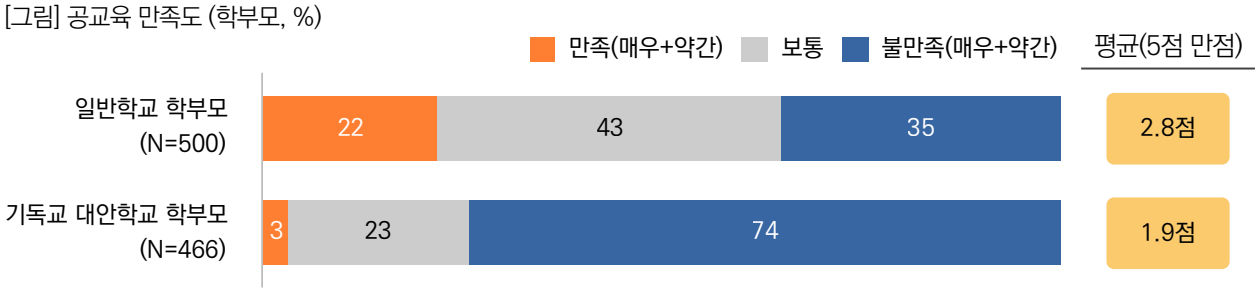


04 [공교육과 대안학교 인식]

대안학교 학부모 4명 중 3명(74%), '공교육 불만족'!

-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어떠할까? 조사결과 일반학교 학부모의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22%로 5명 중 1명 수준이었고,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는 3%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특히 공교육에 대해 '불만족'(매우+약간) 비율은 일반학교 학부모 35%, 대안학교 학부모 74%로 나타나, 대안학교 학부모일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대안학교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공교육 만족도 (학부모, %)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 일반학교 기독학생보다 신앙 수준 전반적으로 높아!

일반학교 기독학생과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의 개인 신앙 단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 기독학생은 신앙이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 이하(5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은 2단계가 45%로 가장 많아, 전반적으로 대안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신앙 성숙도를 보였다.

2.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일반학교 대비 '압도적'!

대안학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는 91%로 일반학교 학부모(38%) 대비 압도적이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도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73%)이 일반학교 학생(53%)보다 20%p가량 높았다.

3. 기독 대안학교 만족 이유, 학생은 '관계', 부모는 '신앙'!

현재 학교에 만족 이유로는 일반학교(47%)와 기독교 대안학교(62%) 학생 모두 '좋은 친구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 분위기'를 1위로 꼽았다. 반면 기독교 대안학교 학부모의 경우 '진정성 있는 신앙 교육(63%)'을 최우선 만족 이유로 선택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생명력이 넘치는 기독대안학교 이야기 (기대연, 예영커뮤니케이션)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목회 적용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기독 청소년일지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성수나 공과 공부를 포기하고 학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신앙과 학업을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기독교 대안학교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기독 대안교육의 높은 만족도와 영적 성숙에의 도움은, 다음 세대 교육의 장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학교와 가정에서 신앙의 가치를 실천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회-가정-학교를 잇는 신앙 교육의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 신앙이 입시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의 사역 반경을 교회 안에서 학교와 가정으로 확장해야 한다. 교회는 아이들이 치열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영적 안식처'가 되는 동시에, 가정과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돕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신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실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진로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야 한다. 대안학교 학생들조차 입시 불안으로 전학을 고민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 현장이 여전히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는 청소년들이 진로의 문제를 단순히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소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멘토링과 성경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입시의 불안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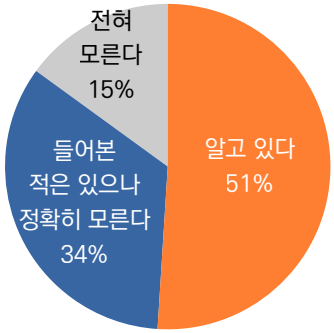
1. 영포티 현상 인식

2.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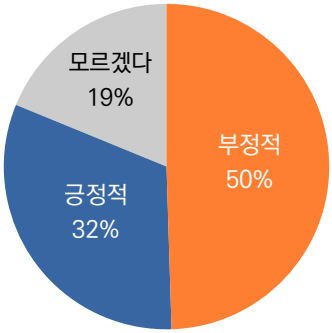
‘영포티’ 용어 인지자 50%가 ‘부정적’으로 인식!

- 영포티(Young Forty)는 본래 젊은 감각과 소비 성향을 갖춘 40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점차 나이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40대를 조롱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들은 영포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인식을 살펴본다.
- 우리 국민의 절반(51%)은 영포티란 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영포티 용어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절반(50%)은 해당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긍정적 인식(32%)보다 18%p 높은 수치로, ‘영포티’라는 단어가 현재 다소 비판적인 맥락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영포티 인지도 (N=1,000)



[그림] 영포티 긍부정 평가* (영포티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N=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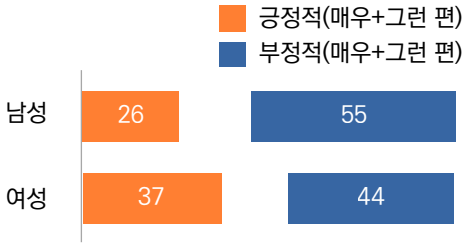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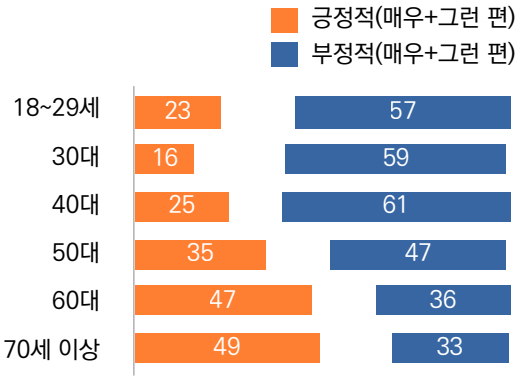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영포티 현상에 대한 인식, 2026.04.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4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함

남성·40대 이하일수록 ‘영포티’에 부정적!

- 영포티 단어에 대한 평가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온도 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55%)이 여성(44%)보다 부정적(매우+그런 편) 견해가 더 강했다.
-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모든층에서 ‘영포티’란 표현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우세했다.

[그림] 영포티 긍부정 평가* (성별, 연령별, 영포티라는 단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N=8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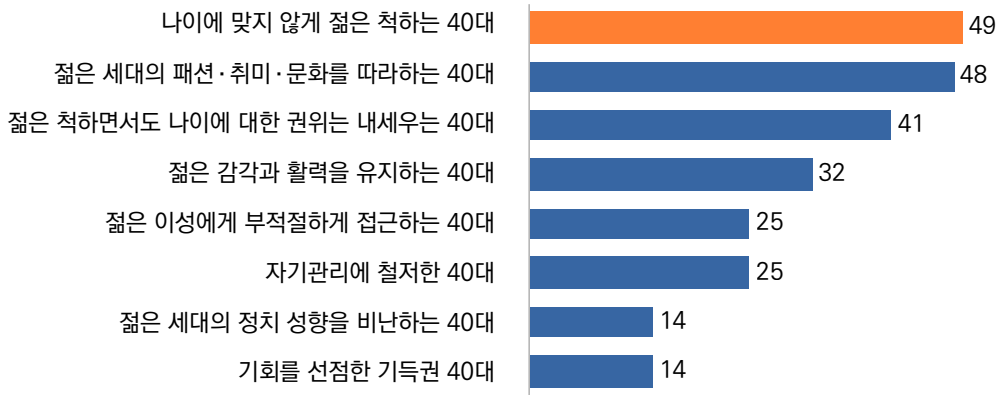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영포티 현상에 대한 인식, 2026.04.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4점 척도/모르겠음은 제외

영포티하면 '젊은 척'과 '젊은 세대 따라하기' 등 부정적 이미지 높아!

- 영포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척하는 40대'(49%)와 '젊은 세대의 패션·취미·문화를 따라하는 40대'(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젊은 척하면서도 나이에 대한 권위는 내세우는 40대'(41%)가 뒤를 이어, 젊은 감각을 지향하면서도 기존 세대의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이른바 '젊은 꼰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반면 '젊은 감각과 활력을 유지하는 40대'(32%)나 '자기관리에 철저한 40대'(25%) 등 긍정적 이미지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림] 영포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복수응답, 상위 8개, N=1,000, %)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영포티 현상에 대한 인식, 2026.04.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2030세대의 영포티 이미지, '젊은 척 하는 40대'!

- 연령별로 영포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이했는데, 20~30대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척하는 40대'(20대 61%, 30대 63%)와 '젊은 이성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40대'(20대 60%, 30대 38%)를 떠올리는 비율이 높아, 영포티란 용어를 단순한 세대적 특징보다 40대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 영포티를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 (연령별, 복수응답, 상위 5개, N=1,000)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척하는 40대	젊은 세대의 패션·취미·문화를 따라하는 40대	젊은 척하면서도 나이에 대한 권위는 내세우는 40대	젊은 감각과 활력을 유지하는 40대	젊은 이성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40대
전체		49%	48%	41%	32%	25%
연령	18~29세	**61%**	39%	50%	15%	**60%**
	30대	**63%**	44%	44%	16%	**38%**
	40대	53%	53%	42%	32%	21%
	50대	46%	51%	36%	38%	12%
	60대	39%	49%	41%	41%	11%
	70세 이상	32%	53%	35%	**44%**	12%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영포티 현상에 대한 인식, 2026.04.07.(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2.06.~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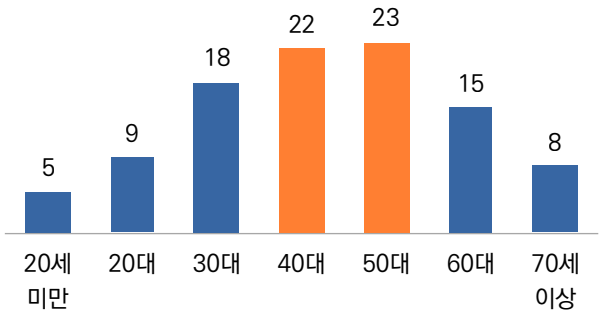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 현황]

국민 10명 중 3명꼴(28%), 주식 투자 중!

- 202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 주식 소유자 수는 1,4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5112만 명)의 약 28% 수준으로,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 개인 주식 소유자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23%)와 40대(2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식 시장의 핵심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20세 미만(5%)과 70세 이상(8%)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소유자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제 주식 투자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개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5.12월 기준)

[그림] 개인 주식 소유자 연령별 분포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6.03.18.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안부), 2025년 12월 기준

개인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 1위,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남성'!

- 거주지·성별·연령대별 개인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47,178주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강남구 거주하는 50대였다. 전체적으로 상위 5개에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 '50~60대 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표] 거주지·성별·연령대별 개인 소유 주식 수 top.5

시·도	시·군·구	성별	연령	소유자 수 (명)	1인당 평균 소유 주식 수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자**	**60대**	20,944	**47,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자	50대	35,876	41,422
경기도	성남시	남자	60대	24,671	27,4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자	50대	24,877	26,034
경기도	성남시	남자	50대	37,050	15,102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6.03.1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60호 (2026년 4월 3주)
- 지방선거 결과 기대

사회 일반

우리 집은 부자일까? 35억은 있어야 '상위 1%' 턱걸이
중앙일보_2026.4.15.

성인 58% "생성형 AI가 의사 상담·진료 대체할 수 있다"
연합뉴스_2026.4.15.

부모 자식 앞에선 괜찮은 척…"죽는게 낫겠다" 낀 세대의 절규
중앙일보_2026.4.18.

청소년 SNS 이용과 보호방안에 대한 국민인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4.14.

한국인이 지난 10년간 가장 사랑한 책은…1·2위 모두 한강 소설
연합뉴스_2026.4.19.

아동 · 청소년 · 청년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데… 청년층만 비껴갔다
국민일보_2026.4.16.

청소년, 담배보다 '약물 경험' 더 많아…ADHD 치료제 최다
연합뉴스_2026.4.20.

실업자 5년 만에 100만명대…4명 중 1명은 청년
중앙일보_2026.4.20.

경제 · 기업

직장인 77% "한국은 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사회"
연합뉴스_2026.4.19.

국제 · 환경

"노인과 산책만 하고 직장인 월급 받아요"…中 '전업 손주' 뜬다
중앙일보_2026.4.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日 '고립사' 2만2000명 넘었다…1인 가구 절반 "고독감 느껴"
중앙일보_2026.4.15.

"SNS 많이 할수록 인간관계 넓어진다?"…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이유
동아일보_2026.4.20.

미국 국민 절반 이상 "이란 전쟁, 가치 없다"
문화일보_2026.4.17.

'기후변화 심각' 인식 옅어져…'환경보다는 편리' 생각 늘어나
연합뉴스_2026.4.19.

건강

'마른 당뇨' 유난히 많은 한국… 이유는?[밀당365]
조선일보_2026.4.16.

5분씩만 짬내면 '혈관 회춘'…의사들이 추천하는 직장인 맞춤형 활동은
매일경제_2026.4.16.

기독교 · 종교

"학교교육의 핵심은 관계"…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우세
한국기독공보_2026.4.19.

기독교 대안학교 만족도 91%… "경쟁 대신 가치와 신앙 택했다"
기독교연합신문_2026.4.17.

청소년 자살률 역대 최고…무너지는 다음세대
한국기독공보_2026.4.13.

미국 기독교인 1/3 "AI의 영적 조언 신뢰한다" 답해
기독신문_2026.3.10.

트렌드

2026 명품 소비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4.14.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읍,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신규 후원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하늘빛순복음교회(담임목사 방성호)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섬김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소그룹 리더 양성 퍼실리테이션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 일정 : 2026년 4월 30일(목) 11:00~16:00
2) 장소 : 비욘드처치(구로동로 47길 6, 3층)
3)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4)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KCMC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 [목회 코멘트]

CTS기독교TV의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KCMC)가 목회의 막막함을 마주하신 분들을 위한 목회 코칭 &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1) 일　정 : 4월 ~ 7월 총 4회 (매월 네 번째 화요일)
2) 장　소 : CTS 컨벤션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3) 참가비 : 15만원 (과정 우수 수료자 선정하여 장충교회에서 장학금 수여 예정)
4) 문　의 : 02-6333-0088 (CTS 미래교회연구소)

자세히 보기 및 신청 링크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